

도심하천 생태복원·F1 운영비 빠졌다

〈광주시 40억원〉

〈전남도 204억원〉

기재부 반영 광주·전남 내년 국고 예산 살펴보니

광주 U대회 712억원 배정... 대회 성공 개최 파란불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비용 87억원 등도 포함된 듯 지역 의원들 공조... 누락된 예산 추가 확보해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액은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최종 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고 예산은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각 부처 반영액을 정한 뒤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반영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비 중 정부 예산 반영액에 누락된 예산을 파악해 정부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국회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조해 절실하다.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탄력=빛누리 국가산업단지 등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은 광주시 최대 현안사업 가운데 하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0억원 국비 지원이 예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치과분야를 광주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에도 10억원의 국비가 책정됐다. 총 길이 41.7km의 순환형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는 52억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는 1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특히, 오는 2015년 개최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운영 및 시설 확충 사업에도 712억원이 배정돼 원활한 대회운영 및 성공개최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하지만,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을 위해 요구했던 40억원도 미반영됐으며, 광주과기원~빛고을로를 연결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R&D)도로 건설비 60억원과 동광주~광산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필요한 9억원,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 조직설립비 1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 F1 대회 운영비 확보 등 시급=전남도가 파악한 정부예산 반영액 중 눈에 띄는 예산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50억원이다. 이 도로는 지난 2007년 기본설계까지 마쳤지만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1.0)에 미달하면서 해마다 정부 예산에서 누락돼 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이 도로가 포함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1월까지 발목을 잡아 왔던 타당성 재조사를 하면서 이번에 예산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설립을 허가·공고

2014년 광주·전남 정부 예산 반영액

광주	사업명	예산	전남	사업명	예산
영남도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육성	10억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50억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10억	호남고속도로(송정-목포) 건설	15,369억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52억	여수세계박람회 효율적 치유 활용	88억	
	5-18 이카이브 구축	50억	수출 산업화 위한 대규모 양식업 조성	52.5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	1052억	실검미디어R&D기반구축	124억	
영남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638억	자동차 튜닝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12억	
	2015광주세계U대회 운영 및 시설 확충 지원	712억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건설	10억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40억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지원	204억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 조직설립	10억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등 확장	200억	
	동광주~광산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9억	서남권 중앙자치료센터 설립	50억	
광주R&D 연결도로 건설	60억	국립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150억		

* 광주·전남도 분석

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튜닝 사업에 12억원을 배정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 밖에 ▲여수박람회 효율적 사후 활용(87억원) ▲수출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양식업 조성(52억5000만원) ▲2014년 완도 해조류 박람회 개최 지원(13억원)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15억원) 등도 정부예산반영액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F1 대회 운영비(204억원)가 단 한푼도 포함되지 않고 1500억원을 건의한 남해안철도(목포~순천) 고속화 사업은 단 2억원만 반영됐으며, 흑산도 소형공항(100억원 건의)도 3억원만 반영되는 등 일부 현안 사업들의 예산 반영도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행기·오광복기자 redplane@

10·30 재보선 단 두곳뿐

경기 화성갑·경북 포항 남·울릉 사실상 확정

새누리당 9.5대1 경쟁률

오는 10·30 재·보궐선거가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울릉 등 2곳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22일 "이달 안에 더 이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 추가로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6~27일께 선고를 하려면 재판 당사자에게 지난 17일까지 통보해야 한다"면서 이달 안에 더 이상 10월 재·보선 관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지난 16일까지 두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신청을 받은 결과, 화성갑에 5명, 포항 남·울릉군에 14명이 신청, 9.5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 신청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기 화성갑=고준호(31·농우바이오 전략기획실 리스크관리팀장), 김성희(57·전 국회의원), 최지용(58·전 경기도의원), 홍사광(60·전 유엔평화대사) 서청원(70·전 한나라당 대표 *비공보 요청)

▲경북 포항 남·울릉군=김순권(54·전 새누리당 포항 남·울릉군 당협위원장), 김경재(47·서울시의원), 박명재(66·전 행정자치부 장관), 박홍배(62·전 서울예술대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백성기(64·전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서장은(48·전 서울경북대 겸임교수), 이용운(49·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춘식(64·전 국회의원), 이희원(60·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임영숙(50·포항시의원), 조재정(51·새누리당 환경노동 수석전문위원), 최진상(68·전 포스코 ICT 기술연구소장).

이와 관련 화성갑에서 서청원 전 대표가 공천을 받을 경우 민주당 후보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손규권 전 대표와 한관 대결이 펼쳐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운태 시장-지역 국회의원 추석 회동

엇박자 냈던 '軍 공항 이전' 논의

강운태 광주시장과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7일 광주에서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문화전당 법안인 화법안에 정부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한, 광주시와 국회의원들 간 엇박자를 냈던 군 공항 이전 문제도 이견을 좁히기는 했지만, 이전 시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다.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임내현 광주시당 위원장, 박혜자·장병완·강기정·김동철·이용섭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운태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검찰 기소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문화전당 법안화 문제도 논의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범시

민연석회와의 법안화 반대 건의는 이번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았고, 다만 문화전당의 재정적 지원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또한, 다음달부터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이른 시간 내에 이전을 추진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공항을 인센티브 형태로 함께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가기로 했다.

하지만 강 시장은 이전 후보지 확정시점에 민간공항을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공항 인접 지역 국회의원들은 KTX개통과 함께 민간공항을 이전해야한다고 맞서는 등 민간공항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지도부와 당 소속 시·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무상보육·취득세 인하 등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문명호 정책위수석부처의장(왼쪽부터), 장병완 정책위의장, 김원주 전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권오용 전남도경제부지사.

“무상보육 실천 국비 추가지원 해달라”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촉구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무상보육 실천에 필요한 국가 재정 추가 지원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당 소속 시·도지사들을 초청해 국회에서 연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재정면에서 2할 자치도 안되는데 무상보육비를

50%(서울 80%)나 지방에 분담시키면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면서 “현재 2할 자치를 5할 자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가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야하며, 소득세와 소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50%를 국가와 지방간 공동세로 운영해 4할 자치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취득세를 인하시키며 발생한 지방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 대비 현행

5%에서 11%로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6% 포인트 인상은 구멍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3% 포인트씩 두 번에 걸쳐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방안도 ‘꿈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인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을 10%까지 인상하기로 확정돼 있었던 만큼 16%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씻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로 간지러운 코

코

■ 콧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배편호기/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염환자의 과용으로 인한 점막 건조 신속히 개선
- 무자극/인체와 깊은 농도의 생리식염수 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축적된 점막 유지
- 휴대편리/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은가죽이 상해해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4억정 하기의 알코올이 없음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비염/비강 건조 증상 완화
용법·용량/성인: 용량에 따라 1회 1회 비강세척제 2~3회 사용하십시오.
※연령, 증상에 따라 적당히 용량하십시오

뽕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코

■ 콧속에 뿌리는 비충혈제거제 - 트인 비액

- 배편호기/코감기로 인한 점막 팽창과 충혈의 불편을 완화 신속으로 즉각적 효과 발휘
- 중성액/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부비강염으로 인해 코가 막히는 답답한 증상도 해소
- 휴대편리/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전신적인 작용 없이 코 안 함부로 작용하는 4억정 하기의 알코올이 없음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감기, 고초열, 부비강염, 상기도 알레르기 등에 의한 비염환자의 일시적 완화
용법·용량/성인 12세 이하 어린이: 용량에 따라 1회 4~5회, 양쪽 비강세척제 2~3회씩 사용하십시오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1202-0705 인터넷 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의하십시오.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